

투데이 칼럼

###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인식하는 존재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멸을 향해 걸어가는 운명을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실존적 불안은 자연스레 절대자를 향한 갈망을 낳았고, 그 간절한 기도의 여정 속에서 종교가 탄생했다. 역사 속에서 종교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이자,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윤리적 나침반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일부 종교의 모습은 이러한 본래의 숭고한 정신과 점차 괴리되고 있다. 신성해야 할 신앙의 영역에 자본의 논리가 침투하면서, 우리 사회에 종교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던지고 있다.



**신 영 규**  
전북수필과기평직기회의 회장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불멸을 꿈꾸는 모순적 존재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먼지처럼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끝없는 가치를 향해 도전하고자 하는 영적 욕망을 지닌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 짓는 가장 독특한 고도 교차원적인 정신적 산물로 자리 잡았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성(神性)이 인간의 세속적 물질욕과 결합할 때 발생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절대자에게 인간이 만든 화폐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을 탐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며, 더 정확하게는 성직자의 옷을 입은 일부 목회자들이다. 오늘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을 금전과 교묘하게 연결시키며, 헌금의 액수와 축복 사이에 기복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려 한다. 강단에서는 신도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땅 위의 재물을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언행불치는 종교가 가진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신앙을 한낱 상업적인 비즈니스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은밀한 압박을 통해 헌금을 강요하거나 특정 금전적 행위를 구원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태도는 신앙에 대한 모독이다. 참된 신앙은 자발적인 마음의 고백과 내면의 도덕적 변화에 기반해야 한다. 교인의 불안 심리와 사회적 체면을 자극해 쥐어짜 내는 물질은 종교적 숭고함을 상실한 채, 지도자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될 뿐이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격정거리로 전락하여 타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종교가 인간의 상처를 위로하고 올바른 삶

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물질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 그것은 이미 종교로서의 생명을 다한 것이다. 교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되고, 자본에 기대어 세력을 확장하려 할수록 그 내면의 영성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종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근원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죽음과 고통,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는 신앙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원될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은 헌금 봉투의 두께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증명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이제라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아봐야 한다. 신앙을 물질적 성공과 맞바꾸며 거대한 재단에 올리는 순간, 하늘의 문은 닫힌다. 교회가 다시금 방향하는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영혼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들의 진정성과 청빈한 삶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 조건 없는 사랑과 순수한 나눔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종교의 본래 모습이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리다.

기고문

### 물·그늘·휴식, 생명 지키는 여름철 안전수칙

여름철이 되면 119구급대는 온열질환 환자를 자주 만나게 된다. "발열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더위를 먹은 것 같은데 기운이 없습니다." "집에 계시던 이르신다 축 늘어져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날이면 이런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의식 저하나 실정지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해 전국특별자치도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35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60%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으며, 온열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닌 여름철 일상이 된 만큼 누구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쉬어주세요  
이러한 때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논밭 작업이나 건설현장 작업, 운동 등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활동은 온열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 한낮에는 잠시 그늘에서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체온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조금만 더 하고 쉬자."라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무리하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다.

#어르신 건강, 가족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온열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어르신에게 더 위험하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기능과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부인도 모르는 사이 탈수가 진행될 수 있다.



**임 준 석**  
덕진소방서  
급원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실제 현장에서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집 안에서 발견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과 이웃의 안부 전화 한 통, "물 좀 드셨어요?"라는 한마디가 폭염으로부터 어르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작은 관심과 살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물·그늘·휴식만 기억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어렵지 않다. 첫째,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신다. 둘째, 햇볕을 피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히 쉬는 것이다. 셋째, 더운

시간대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한다. 열관리청에서는 폭염 예방의 핵심으로 '물·그늘·휴식'을 강조하고 있다. 극심한 응급처치보다 이러한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방법이다.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어지럼증, 두통, 심한 피로감, 근육경련,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몸을 식혀주고, 의식이 저하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억지로 물이나 먹이지 말고 신속히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9구급대는 폭염 속에서도 언제든 도민의 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쉬며,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이자 어려움을 인위하게 브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사설

### 봉산 정재경 개인전

봉산 정재경 화백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라 2실(1층)에서 개인전 '자유, 자연 그리고 꿈 - 해상비조도(海上飛鳥圖)'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갈매기를 중심 소재로 한 대작 연작과 수묵채색 작품들을 통해 자유와 치유, 화해와 통일, 희망의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시 제목인 '해상비조도'는 바다 위를 자유롭게 비상하는 새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자유로운 정신과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작가는 "수년간 갈매기의 동작과 시선, 비행 자세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새를 그려왔다. 갈매기의 비상은 단순한 자연의 기록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상처와 꿈이

함께 날아오르는 시대적 장면이다."고 했다. 그는 경계를 넘어 비상하는 갈매기의 모습에서 분단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희망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갈매기가 바다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듯, 인간 역시 인위적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다. 전시 대표작인 '자유, 자연 그리고 꿈'은 폭 10m가 넘는 대형 수묵채색 작품으로 갈매기들의 역동적인 비행 장면을 담아냈다. 갈매기 연작 외에도 '열린', '화문', '공한(空閑)', '공생', '혹도' 등 다양한 수묵채색 작품이 함께 선보여 작가의 폭넓은 예술세계를 조망할 수 있다.

### 기초연금 개편 방향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충소득'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보장성을 높이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에 보장을 더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식 개편을 언급한 만큼, 빈곤 노인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민간자문위 위원들이 재정 안정과 소득보장패로 나뉘어 뚜렷한 합의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에게로 확대하거나 '보충소득'을 추가로 도입하는 주장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느 연구위원은 보편적 기초연금 신설과 보충소득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충소득'을 추가 지원한다는 주장이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을 3분의1을 적용해 급여를 절감적으로 줄이는 구조다. 또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신설하는 주장도 내놴다. 기초연금을 축소해 빈곤 노인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보편화 모델을 각각 제시하기도 했다. 이때 보충연금은 국민연금 비수급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개시연령을 68~70세로 높이고, 고소득 노인에게는 세금을 통한 환수(daw-back)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기초연금에 대해 보충연금을 주는 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한 제도를 또 만들자는 이야기다.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제외해야 빈곤 노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